

‘한과 · 차 함께 가을을 즐겨요’

청년소모임 ‘올디, 다과문화 체험 온 · 오프라인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받아

한국 문화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팀 올디(olddy)가 가을을 맞아 한과와 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가 이슈의 지원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 올디는 ‘original & trendy’라는 모토를 갖고 활동한다. 이에 따르면 올디는 문화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여 우리 것들이 잊혀져 가는 상황과 외면당하는 현실에 해결법을 찾으려 한다. 한국 신화 설화와 같은 이야기 지역의 옛 이야기 우리 의식주, 게임놀이 등 한국 문화 속 요소들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가을하다. 다식하다’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전통 과자인 다식을 만들고 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비싼 일상, 저마디의 힘들고 지내는 모든 이들이 다식과 차를 즐기며 작은 한 입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20일~22일에는 올디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전북대학교 인근의 펍로이에서 열리는 팝업스토어에서는 올디가 제작한 영상과 올디의 캐릭터 올랑츠를 활용한 엽서, 전통다과와 차를 제공한다. 행사 및 모든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된다. 해당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올디 인스타그램 계정 (@olddy_offici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디의 유튜브 채널인 ‘올디 : Korea traditional story’를 통해 올디의 전통클래스 ‘한국의 색을 담은 다식만들기’가 23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올디 임소윤 대표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과거의 이야기는 물론 지금 우리 삶 속에 남은 작은 이야기들까지 한국인이자 누구나 공감할 우리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가 이슈 사업은 도내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이슈, 환경 등을 문화예술로 풀어내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개 소모임이 선정돼 전시회 영상제작, 책자발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2)과 청년 소모임 ‘올디’ 담당자(010-6397-8774)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남원 · 한복 담은 사진 찾아요”

남원시, 28일까지 한복사진 공모전 개최

남원시는 우리 옷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 대중화를 위한 한복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 ‘남원 한복문화 가을주간’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한복사진 공모전은 ‘한복과 함께 추억’이란 주제로 한복과 남원을 표현한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크게 2 종류로 우선 ‘남원 속 한복사진 이야기’는 남원에서 촬영한 한복 사진이라면 어떤 사진이든 가능하고, 남원 옛 추억을 한복 입고 따라하기는 과거 부모님 등 가족 또는 친구와 찍은 옛 사진과 최근 같은 장소에서 한복 입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한복사진 따라하기 사진이 필요하면 화인당(063-632-8100)을 방문해 이 곳에서 한복 체험도 하고 공모에 필요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한복을 입었을 경우 관광무원 무료입장 혜택도 주어진다.

응모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인스타그램 화인당 계정을 팔로우 한후 지정 해시태그(화인당 인스타 안내문 참고)와 함께 사진 작품명, 촬영장소 등을 업로드 하는 방식의 접수와 이메일(namwon_hwaindang@naver.com)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결과는 11월 3일 화인당 인스타 계정으로 발표 예정이며, 시상은 ▲대상(1명, 갤럭시폴립3) ▲최우수상(2명, 남원에촌 숙박권 패키지) ▲우수상(4명, 남원에촌 숙박권) ▲장려상(4명, 화인당 한복체험관 2인 이용권) ▲입상(20명, 커피피프톤 2인) ▲특별참여상이 주어진다. 양인환 관광과장은 “한복사진 공모전은 남원에서 한복 입는 한장의 사진을 통해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고 추억을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나순녀 · 안영옥 작가展’ 개최

나순녀 작가 지수공예 · 생활의류 등 30여 점 · 안영옥 작가 손인형공예 20여 점 전시

무주군은 ‘나순녀 · 안영옥 작가展’이 16일 토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안성면 칠연로 338)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나순녀 작가는 안영옥 작가는 모두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로, 이번 전시회에서 나순녀 작가는 ‘지수공예’와 ‘생활의류’ 등 30여 점을, 안영옥 작가는 ‘손인형공예’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최원 관장은 “코로나 19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민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가을정취 가득 품은 미술관에서 훈과 열정으로 빛낸 작품을 보면서 용기(勇氣)하는 작가들을 응원해 주시고 지친 마음도 달래보시라”고 전했다.

전시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자율관람으로 진행된다. 한편,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는 2001년 폐교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곳으로 부지 7,451㎡, 건물 960.42㎡ 규모에 작업장과 전시실, 카페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최원 관장(서양화)과 비롯한 나순녀(홍패션), 안영옥(인형), 이호영(서예), 나운재(도예), 허인화(캘리그래피), 박광태(연극연출), 이운승(사진) 작가가 입주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덕유산 사진전(이운승 작가)이 개최되기도 했다. 또 입주 작가들이 서양화와 캘리, 서예, 생활자기 지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 특별전

19일부터... 디지털 복원 사업 결과 공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19일부터 특별전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 박물관의 미륵사지와 고대 불교사찰 조사사업 중 하나인 창건기 미륵사 석등의 디지털 복원 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다. 이에 따르면 미륵사지 동원·중원의 금당지와 탑지 사이에 남아있는 석등의 하대석은, 7세기 전반 창건기 미륵사의 중요한 자료다. 미륵사지에는 이 하대석 2점을 포함해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된 총 13점의 석등 부재가 전한다. 이 가운데 같은 모양 비슷한 크기의 화사석이 3점, 육개석 3점이 포함돼 있다. 이는 미륵사 3원 가람에 같은 모양 비슷한 크기의 석등이 3기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익산박물관은 총 13점의 석등 부재를 모아 3차원 실측 조사를 실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부재의 원래 모습을 디지털 복원했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경우의 수로 조합해 창건기 미륵사 석등의 옛 모습을 재현했다. 전시실에서는 미륵사지 석등 부재를 3D 스캔해 제작한 모형을 직접 조합해 보거나 높이 6.6m 대형 화면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나만의 석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현전하는 백제 석등 3점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백제 사찰 안에 석등이 서 있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부여 외리 출토 산수무너 벽화의 모티프를 활용한 3D 홀로그램과 글래



동원 석등 추경 복원안

스 아트도 선보여, 백제 석등의 원형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익산박물관 관계자는 “석등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흔하지만, 흔한 만큼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백제 석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며, 국립익산박물관은 앞으로도 미륵사 석등과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문화예술계 성평등 창작환경 구현 ‘첫 발’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비평집 발간

전북 문화예술계 성평등 네트워크의 8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성평등 예술비평학교의 비평집 ‘문화예술다리미’이 15일 발간됐다. 전북문화예술계 성평등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단체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상덕),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기상),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소장 신유주), 전북여성문화예술인네트워크(대표 송원),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대표 김은혜)으로, 지난 4월 29일 전북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활발한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평등 예술비평학교는 전북문

화예술계 성평등네트워크의 첫 협력 사업으로 여성주의 비평그룹을 양성하고 실질적인 비평 활동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창작환경과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공모 심사를 통해 총 19명의 참여자를 선정, 참여자들은 6월부터 약 10주 간 김민조(연극평론가), 박우성(영화평론가), 장은정(문학평론가) 등 현장에서 여성주의 비평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사들의 교육과 글쓰기 실습으로 각자의 비평문을 작성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이 중 수료기준을 충족한 13명이 최종 수료했다. 이에 그간 진행된 강의내용과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소감 및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비

평문들을 모아 비평집을 발간했다. 비평집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선택한 만화 ‘여지력’, 연극 ‘가스’, 영화 ‘노매드랜드’, 문학 ‘캐틀링’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한 후 여성주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비평 글들이 담겨있다. 재단 경영지원팀 김범석 팀장은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견고한 비평그룹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문화예술 비평 활동을 이룸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건강한 창작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비평집은 각 재단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www.jbctc.kr)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 리더 양성 허브기관 자리매김

(제)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여성인재 이카데미’를 통해 총 1,400여 명의 수요층을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 8년째 선정, 도내 여성 리더 양성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도내 기업·기관 재직 중간관리자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14일~15일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직 중간관리자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리더와 리더십 ▲여성 리더십 포지션 ▲여성의 리더십 행동 ▲핵심 리더십 역량 진단 ▲효과적 의사결정 ▲동기부여와 피드백 ▲네트워킹 ▲개인별 스킬 적용을 위한 플랜 등 8개의 모듈로 구성됐다. 이운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여성 고위관리자 비율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조직 변화를 주도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센터는 지속적

으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해 성평등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임병수와 함께하는 7080 콘서트 개최

김제시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10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임병수와 함께하는 7080 콘서트를 선보인다. 1984년 데뷔곡 ‘약속’으로 방송사 신인상을 휩쓸며 단숨에 인기 가수 반열에 오른 임병수는 한국에서 ‘리턴팝’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한국 리턴음악의 대중화에 앞

장서고 KBS<불후의 명곡>, JTBC<응답하라 1988>OST 등 다양한 방송에서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며 가수 임병수를 추억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표곡인 ‘약속’, ‘아이스크림 사랑’과 리턴음악 ‘Besame mucho’, ‘La bamba’ 등을 선보이며 새로운 7080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1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김제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는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공연문화 증진을 위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080 안심콜 자가 진단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도태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작업복
단체복

안전화
안전용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기념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명찰, 로고
각종 인쇄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